

성관음 보살입상

다노카미 관음당의 본존이다.

일목조(통나무 조각)로, 총높이는 67.5cm이다.

이 불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.

'명승이 만든 불상을 안치하는 토지는 번성하고 행복하다는 미신이 유포되던 시절, 히다(飛驒)국에서 불상을 가져온 사람이 다노우에노사토에 와 하룻밤 묵고 다음 날 아침 떠나려 할 때, 불상이 갑자기 무거워져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두고 갔는데, 이 관음보살의 존상은 "교기보살(行基菩薩)의 명작으로 히다(飛驒)국 어느 절의 본존이다"라는 말을 남겼기에 이 지방 사람들은 의논하여 현재의 자리에 불당을 건립해 안치했다고 한다.

'기소무라 문화재 탐방'

(1986.3.25 발행 기소무라 교육위원회)에서